

임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양 영 길*

〈목 차〉

- | | |
|------------------------|-----------------|
| I. 서론 | 2) 시대구분 방법 |
| II. 임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 3) 지도원리에 입각한 인식 |
| 1) 근대성에 대한 인식 | 4) 이식문화론 |
| | III. 결론 |

I. 서론

문학사 서술 방법을 비롯한 문학사론에 관한 연구에서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창작 방법론이나 비평방법론 등에 비해 그 연구 성과가 너무 빈약한 데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와 독재치하를 거쳐오는 동안에 지나친 객관성을 요구하는 메마른 역사관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학사 서술을 비롯한 역사 서술은 그 방법에 따라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나 그 동안의 방법론이나 문학사서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고, 아울러 동일문학사 서술이라는 문학사적 통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 오늘날에 와서도 일제 강점기에 서술한 문학사에서부터 그 평가와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

* 제주대 강사

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문학사 서술방법론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새로운 한국 근대문학사를 서술하여 한국 근대문학사상을 밝혀내고 우리 문학사의 정체성을 구현”¹⁾ 하기 위해서는 문학사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씌어지는 문학사는 현재의 관심과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와의 관련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계발하여 새롭게 씌어져야”²⁾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임화의 문학사 방법론에 대한 평가는 다소 감정적으로 이루어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임규찬은 “분단시대의 민족사에서 한 쪽에서는 한때 좌파 문인의 거두라는 이름으로 단죄되어 접근조차 금지되었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미제 스파이라는 죄명의 반민족분자가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³⁾ 임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임화의 문학사 방법론에 대한 그 동안의 평가는 문학사를 서술할 때마다 형식적으로나마 몇 마디씩 거론하고 있다. 조연현은 “실상은 아무런 구체적인 묘사도 아닌 추상적인 설화”⁴⁾로 평가하고 있으며, 김윤식은 “한국 문학의 식민지성, 혹은 보다 온건한 어휘로 표현한다면 주변문화성이 명백히 드러난다.”⁵⁾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학자들은 임화의 문학사 서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좀더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임화는 우리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기반한 전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프로문학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학사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문학사』를 서술했다. 그러나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분히 막연한 시민문학론에의 경사를 노정한 이 문학사는 일제의 탄압으로 계속되지 못하고 신소설 대

-
- 1) 양영길, 『한국 근대문학사의 서술 양상 연구』(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p.7.
 - 2) 위의 논문, p.8.
 - 3) 임규찬, 「임화 '신문학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임화, 『신문학사』(임규찬·한진 일 편, 한길사, 1993), p.431.
 - 4)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제1부)(현대문학사, 1956), p.96.
 - 5)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p.14.

임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목에서 중단되었다. 우리 근대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시기에 씌어졌고, 서술 자체가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임화의 『신문학사』는 우리 근대 문학을 그 역사적 맥락 위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문학이 지닌 자율성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근대문학사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중요한 첫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임화의 『신문학사』를 펴낸 임규찬은 “방법론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출발 조건에서 특정한 목표로 유도해 가는 가능한 조작 체계 전체를 규정하는 방법상의 규칙 혹은 원리들의 체계’에 대한 이론이다. 따라서 방법론이라면 당연히 ‘논리적 체계’를 기본 전제조건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글(필자 주 :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를 비롯한 문학사 전반)은 ‘체계’가 아닌 하나의 체계를 이루기 위한 주요 문제영역들을 제시하고 각 영역별 연구내용을 적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⁶⁾고 평가하였다.

또 김진기는 “임화의 문학사기술과 방법론에 대한 탐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⁷⁾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호웅은 “아직도 ‘임화 소설사’의 생명력은 소진되지 않았다. 임화가 실천이란 개념향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여러 난제들, 예컨대 전통과 이식, 운동으로서의 문학과 작품으로서의 문학, 근대화와 민족주의, 토대 관련성과 외래적 이식, 정신의 외현으로서의 내적 형식의 문제 등, 시사적 통찰로 가득함 ‘임화 소설사’에는 여전히, 충분히 해결되지 않아 우리의 검토를 기다리는 내용들이 상당수 들어 있는 것이다.”⁸⁾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임화의 문학사 서술과 그 이론적인 성과는 한국 근대문학사 연구의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대문학사와 연구방법론의 물꼬”⁹⁾를 터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규찬의 말처럼 임화의 문학사관은 ‘이식문학사관’의

6)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한길사, 1993), p.50.

7) 임규찬의 앞의 글, p.433.

8) 김진기, 「〈임화의 『조선신문학사』〉 비판」(건국대학교 국어국문연구회, 『건국어문학』 제19·20합집, 1995), p.463.

9) 정호웅, 「‘임화 소설사’의 몇 가지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 이론연구 제8집, 1997), p.132.

10) 임규찬의 앞의 글, p.430.

로 재단되어 이에 대한 연구는 다른 영역의 연구에 비해서 빠르게 종결되다시피 했다.”¹¹⁾ 이는 객관적인 평가의 걸림돌인 감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학사 서술 방법의 가장 기본은 문학적 사실(史實) 선택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제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기준과 방법은 문학사가의 가치 판단이며 하나의 사관에 기인한다. 문학적 사실(事實)은 불변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문학적 사실(史實)은 문학사가가 선택한 가변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출판된 문학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앞으로 서술될 문학사의 오류와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임화의 문학사 서술 방법에 대하여, 「개설 신문학사」(『조선일보』 1939. 9. 2 ~ 10. 31), 「신문학사」(『조선일보』 1939. 12. 8 ~ 12. 27), 「속 신문학사」(『조선일보』 1940. 2. 2 ~ 5. 10), 「개설 신문학사」(『인문평론』 1940. 11 ~ 1941. 4)를 바탕으로 ‘근대성에 대한 인식’, ‘시대구분 방법’, ‘지도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인식’, ‘이식문학론’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임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1) 근대성에 대한 인식

임화는 「신문학사」를 서술함에 있어 ‘근대성’과 ‘근대문학’에 대한 인식은 확고했다. 그는 “신문학사라는 것은 조선 근대문학사라 일컬어도 무관”¹²⁾하다고 하면서 “서구적인 형태의 문학을 문제삼지 않고는 조선의 근대문학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도 된다.”¹³⁾고 문학의 형식적 측면에서 근대문학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는 「신문학사의 방법론」에서 ‘대상’을

11) 위와 같음.

12) 임화, 「개설 신문학사」(조선일보 1939. 9), 「신문학사」(임규찬·한진일 편, 한길사, 1993), p.17.

13) 임화의 위의 책, p.18.

임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설명하면서 “신문학사의 대상은 물론 조선의 근대문학이다. 무엇이 조선의 근대문학이나 하면 물론 근대정신을 내용으로 하고 서구문학의 장르를 형식으로 한 조선어문학”¹⁴⁾이라고 규정하였다.

또 그는 ‘自由로운 散文을 形式으로 한 文學’과 ‘市民精神’¹⁵⁾, 그리고 “商品資本의 蓄積 産業資本에의 轉化 商品流通의 擴大와 그것을 可能케 하는 生産力의 增大 手工業의 獨立 「매뉴팩처어」의 成長 交通의 發達, 市民階級の 勃興等”¹⁶⁾ 사회경제의 발달상에서 근대성을 찾고 있다. 즉 문학의 형식에서는 ‘자유로운 산문 형식’과 ‘서구적 장르’, 문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정신의 내용’과 ‘사회경제의 발달상’으로 근대문학을 보고, 신문학사 연구는 “서구적 형태의 문학이 성립하고 발전한 역사를 중심으로 (...) 제 극극(究極)의 과제”¹⁷⁾로 삼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근대성에 대하여 “자주적 근대화의 조건을 준비해 가지고 있지 못하던 조선사회”에 “외래자본체가 국내로 유입하면서 후진사회 내부엔 두 가지 작용이 병행적으로 진전”되는데 그 “하나는 전자본체적 제 관계의 급속한 와해요, 다른 하나는 국내에 있던 자본주의적 요소의 급속한 성장과정의 전개”¹⁸⁾ 등 사회 경제에 바탕을 두고 인식하였다. 즉, 한국 사회의 근대성을 자생적으로 성숙, 발전치 못했다는 것이다. “근대사회로의 전화를 위한 기본적 제조건, 예하면 상품자본의 축적, 산업자본에의 전화, 상품유통의 확대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생산력의 증대, 수공업의 독립, 매뉴팩처어의 성장, 교통의 발달, 시민계급의 발흥 등은 자연경제의 분열을 내포한 봉건사회 자체의 성장에 정비례하여 구비됨은 벌써 정식이 된 사실이다. / 따라서 이러한 제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사회를 우리는 성숙한 봉건사회라고 부를 수는 없다.”¹⁹⁾라고 식민사관의 하나인 ‘아시아적 정체성’에 근간을 두고 자주적 근대화의

14) 임화, 「조선문학 연구의 일 과제」(임화의 위의 책), p.373.

15) 임화의 위의 책.

16) 위와 같음.

17) 임화의 위의 책, p.21.

18) 위의 책, p.41.

19) 위의 책, p.24.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결국 서구의 근대 사회제도를 수입 이식하지 않고는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의 전화, 과도(過渡)를 불가능케 한 조건을 만드는데 결착(結着)되는 것”²⁰⁾이라고 사회경제 구조의 이식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근대성의 문제를 사회경제를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 시대구분 방법

임화는 문학사를 서술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시대구분에 대하여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다. 「개설 신문학사」(1939)의 차례를 보면 이에 대한 인식의 근간을 엿볼 수 있다.

제1장 서론

1. 신문학의 어의와 내용 / 2. 우리 신문학사의 특수성 / 3. 일반 조선 문학사와 신문학사

제2장 신문학의 태반

제1절 물질적 배경

1. 자주적 근대화 조건의 결여 / 2. 조선의 개국 지연 / 3. 근대화의 제1과정 / 4. 근대화의 제2과정 / 5. 근대화의 제3과정 / 6. 개국의 영향과 갑오개혁

제2절 정신적 준비

1. 금압하의 ‘실학’ / 2. 자주의 정신과 개화사상 // 1) 신교육의 발흥과 그 공헌 / 2) 저널리즘의 발생과 성장 / 3) 성서번역과 언문운동

제3장 신문학의 태생

제1절 과도기 문학

제2절 정치소설과 번역문학

제3절 신시의 선구로서의 창가

20) 위의 책, p.26.

임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제4절 신소설의 출현과 유행

1. 신소설의 의의와 가치 / 2. 작가와 작품의 연구 // 1) 이인직과 그의 작품 / 2) 이해조와 그의 작품 / 3) (속)이해조와 그의 작품

위의 차례를 보면, '연대적 시대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발전론적 시대구분'을 바탕으로 연대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보여주고 있으나 정돈되었거나 균형이 잡혀있는 시대구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서술한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1935)의 내용을 편이상 정리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대구분하고 있다.

1. 봉건적 소설류로부터 이인직에 이르는 계기,
2. 이인직으로부터 춘원,
3. 춘원으로부터 자연주의,
4. 자연주의로부터 낭만주의에 이르는 전과정²¹⁾

또 「소설문학 20년」(1940)에 와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이인직에서 비롯하는 조선소설은
2. 관념의 문학에서 출발한 춘원의 이상주의를 거쳐
3. 『백조』적인 주관주의에 이르는 동안 관념성은 하나의 전통이 되어 왔다. 또한
4. 김동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빙허, 상섭에 이르러 도향에 끝나는 자연주의는 되도록 관념을 피해왔다. (...)
5. 그러나 신경향파 문학은 자연주의의 물관념성에도 대립하고 이상주의나 데카당스의 주관주의에도 대립한 문학이다.²²⁾

또 “내가 신문학사에서 쓰는 과도기라는 말은 육당의 신시와 춘원의 새 소설이 나오기 이전, 그리고 한문과 구시대의 언문문학이 지배권을 상실한 중간의 시대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라고 ‘과도기’를 설정하면서 “신문학은 당연히 가져야 할 새 위(威儀)를 채 갖추지 못하여 일종 반구반신(半舊半新)의 문

21)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임화의 위의 책), p.361.

22) 임화, 「소설문학 20년」(임화의 위의 책), pp.400~401. - 필자가 설명을 위해서 번호를 부여하고 줄거름.

학”²³⁾으로 ‘과도기’에 근거하여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기미(己未)라는 한 개의 분수령을 중심으로 조선 사람의 역사적 생활의 용모와 내용이 현저히 변화”했다면서 “이 시기는 신경향파 문학 탄생의 진통기”²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잡지 『창조』와 김동인의 소설에서 비롯하는 자연주의 소설이 비로소 조선 현대소설을 신소설의 영향에서 완전히 분리시켰다. 이것은 자연주의가 조선소설사상에 기여한 거대한 재산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 현대소설은 진정하게는 김동인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²⁵⁾고 하여 동인에서부터 현대소설의 기점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향파 문학의 출현에 대하여 “그 전의 시대에 버금하여 교체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신경향파는 사실상 문화사상의 순서로 당연히 조선의 시민적 문학이 해결해야 할 것을 미해결 채로 남긴 과제까지도 계승받아 실로 모든 영역의 개척자로서의 운명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다.”²⁶⁾고 앞 시대 문학과 차별화하고 있다. 이는 동인에서 진정한 현대소설의 출현으로 보면서도 신경향파 출현을 현대문학의 기점으로 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이인직의 소설 등은 신문학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② 신문학 첫째 시기는 춘원, 육당 문학까지이며, ③ 신문학 둘째 시기는 소설에서는 김동인의 자연주의, 시에서는 ‘백조파’ 등의 주관주의, ④ 신문학 셋째 시기는 빙허, 상섭, 도향의 문학 ⑤ 신문학 넷째 시기 신경향파 문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임화는 문학사 서술의 기본이 되는 시대구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지만 ‘근대문학의 기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갑오는 조선 근대문화 탄생의 위대한 신호였다. / 또한 어떠한 정치적 폭절도 조선의 근본적으로 갑오 이전으로 회귀시키지는 못했다. 새 문화는 어떠한 조건으로이고 생탄(生誕)·성장할 필연한 운명의 길을 걷게 된 것이 또한 사실이다.”²⁷⁾고 근대문학의 기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 기점은 이식문학적인

23) 임화의 위의 책, p.129.

24)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위의 책), pp.339~340.

25) 임화, 『소설문학 20년』, p.390.

26)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 p.362.

27) 임화의 위의 책, p.52.

입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식의 근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속 신문학사」에서는 “갑오의 경장 이후 조선은 현저히 달라졌다. 그 개혁이 어떠한 수단에 의하였고, 어떠한 형태의 개혁이든 간에 직접 구세력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할 임무는 면제”되었다면서 ‘권신징구(勸新懲舊)’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갑신정변 같은 정변의 빌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이 갑오 이전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목적은 (...) 문화의 이식과 그것에 따른 민도(民度)의 개발이요, 국가 실력의 함양”²⁸⁾에 두어 문화의 이식을 위한 외국 유학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입화는 근대기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갑오(1894)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현대기점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신경향파 문학의 출현이 “자연주의 문학의 퇴화와 세기말적 혹은 데카당적인 낭만파주의 문학 등”²⁹⁾에서 세대교체기에 해당한다면서 “실로 한 개 르네상스이었다.”³⁰⁾고 극찬하고 있어 현대문학의 기점을 신경향파 출현에서부터 설정하고자 했다. 신경향파의 출현에 대하여 ‘새로운 천공(天空)으로의 역(力)의 비상을 열망하던 진보적 정신의 종합적 통일자로 계승되어 무한의 발전의 대해로 인도할 역사적 운명을 가지고 탄생’³¹⁾했다는 내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입화의 시대구분은 그 기본적인 접근에서부터 체계를 이루는 데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근대 기점’이라든가 ‘현대 기점’에 대해서도 그 역사적 인식의 기층이 그다지 깊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3) 지도원리에 입각한 인식

입화는 한국 근대문학을 ‘지도 원리’에 바탕을 두고 진보 정신, 정치적 행동, 계몽운동, 계급 모순, 투쟁 등의 ‘행동적 기간’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신경향파 문학에 대하여 세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예술과 생활의 불가분의 관련과 생활적 현실에의 예술의 종속을 절규하면서 낡은 문학에 도전

28) 입화, 「속 신문학사」(위의 책), p.224.

29) 입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 p.360.

30) 위의 글, p.362.

31) 위의 글, p.354.

한 것, 둘째, 사회경제적 사정의 추이를 반영하는 것, 셋째, 점차로 생활로부터 유리하려는 문학 유포에 대하여 그들이 투쟁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³²⁾ 등이다.

그리고 그는 이원사관에 대하여 과거 카프의 조직적 외해를 촉진시키는 변질주의(變質主義)의 이론적 무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³³⁾고 하여 문학사를 반동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식하고 있다.

임화는 「朝鮮文學 研究의 一課題」(1940)에서 문학사를 “여러 가지 時代의 精神의 歷史”라고 하면서 “文學史는 무엇보다 (...) 精神의 歷史를 一貫性에서 理解”³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文學은 歷史的으로 改革된 階段과 一新된 社會를 背景으로 하여서만 誕生하는 것”이며, “人間의 精神文化史上에 잇서 하나의 커-다란 自覺의 產物”³⁵⁾이라고 정의하여 지도 원리의 근간을 정신사적 측면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정신사의 기층을 이루는 민중, 혹은 소시민에 대한 관심이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독립신문』의 순언문체의 사용은 ‘일대 위업’이라면서 “순언문체는 민중이 순수한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외치는 패기”이며, “계급타파와 시민평등의 표현”³⁶⁾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이러한 민중 내지 소시민에 대한 인식의 근간은 “소시민성이란 (...) 막연한 중간적 무기력자를 말함이 아니라, 당시의 조선의 사회계급적 생활 가운데 있는 소시민과 지식층 그것이었다. 당시 소시민의 상태란 물론 노동자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며 민족자벌에 위(位)하지도 못하면서 이들과 공통적으로 외래적 힘의 중압하에 있으며, (...) ‘외력’과 ‘민족부르’의 이중의 압력하에 서 있었다.”³⁷⁾고 소시민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이 시대의 소시민이란 조선의 제사회계급 중 그 경제적 외해와 정치상 지위의 상실을 가장 통렬히 경험한 부분의 하나이었으며, 그 경험을 가장 아프게 자각한 부분”³⁸⁾으로 지도의 힘이

32) 위의 글, p.360.

33)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3)(『조선중앙일보』, 1935. 10. 11).

34) 임화, 앞의 글.

35) 임화, 「개설 신문학사」(4)(『조선일보』, 1939. 9. 8).

36) 임화, 「개설 신문학사」, pp.76-77.

37)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 p.342.

38) 위와 같음.

입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미쳐야 할 곳이 바로 소시민이라는 것이다. 그는 1924년 당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내용의 특질의 하나로 “근로자운동이 분산된 계몽적 사상운동으로부터 정치행동의 전국적 통일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³⁹⁾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곧 조선의 계급적 모순이 그 전형적인 대립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기미(己未)’ 전후에까지 식민지적 특수성에 의하여 은폐되었던 계급적 모순이 비로소 본래의 성질을 가지고 기본적 국면에 상극하게 된 것”⁴⁰⁾이라고 부연하였다.

또 한국 근대문학을 과도기 문학과 구분하여 그 지도 원리의 변화 추이를 밝히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과도기 문학을, “외래문화의 영향하에 성장한 근대 시민적인 문화의식이라 하겠다. (...) 계몽운동의 일익으로 신문학은 생겨난 것이다. 신문학의 선구요, 그것을 직접 준비한 과도기의 문학은 그러므로 투쟁의 문학이라느니보다 더 많이 계몽의 문학”⁴¹⁾이었다는 것이다. 즉 지도 원리, 투쟁 원리에 입각한 문학과 계몽문학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 문학을 “새로운 조선의 정치적 이상을 선전하고, 깨우지 못한 민중을 계몽하려는 의도가 직접적, 또는 노골적으로 표현된 정치소설”⁴²⁾이라는 것이다.

또 갑오경장에 대하여 비판하는 부분에서도 지도 원리에 입각하여 지도자적 인식의 틀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갑오경장이 조선의 정치와 민중생활 위에 파급한 영향이다. 갑오경장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것이 새로와졌으나, 또한 그와 동시에 적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구태의연한 대로 남아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개혁되어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그것은 의연히 존속하면서 단지 새로운 형식을 뒤켜 쓴 데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갑오경장이 하부의 실력에 의한 개혁이 아니고 상부로부터의 개혁인 때문이며, 자주적으로 되어진 개혁이 아니고 외부의 힘을 많이 빈 개혁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개혁이 정치에 미친 영향은 주로 제도의 형식상 변화에 불과하며, 따

39) 위의 글, p.358.

40) 위와 같음.

41) 입화, 「신문학사」, p.130.

42) 위의 글, p.135.

라서 민중생활은 결국 형식만 새로워지고 본질은 낡은 재래적 생활에서 일보도 전진하고 있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⁴³⁾

이러한 인식은 민중 생활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갑오경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의 틀 속에서 그는 '통속성'의 문제에 대하여 "문학적 발전의 정돈(停滯) 내지 퇴보, 즉 문학의 속화(俗化)를 의미"한다면서 "문학이 독자를 지도하는 입장을 방기하는 것"⁴⁴⁾으로 규정하여 지도 원리에 입각한 반동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또 문학과 실생활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이원사관에 대하여서도 "과거 카프의 조직적 와해를 촉진시켜 변질주의(變質主義)의 이론적 무기"이며, 신경향파 문학의 "예술상의 당파적 견지를 파괴하려는 데"⁴⁵⁾ 실로 효과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임화의 지도 원리에 입각한 문학사 인식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된다. 그것이 임화가 당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이며, 극복의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제약은 "군국주의 파시즘의 강화"이며 이것은 "문학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카프의 해산으로 말미암은 문학운동의 퇴조와 사상성의 감퇴는 이 시기 문학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⁴⁶⁾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화의 지도 원리에 대한 인식은 이 시기의 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제약과 한계는 사회학적 방법이라는 인식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유물사관의 이론적 교조주의에 함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소장 학자들은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이 시기(1935~45) 임화의 민족문학론은 "맹아적 수준"이거나 "단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문학의 본질을 역사주의적으로 이해하면서 '프로문학이 지도하는 민족문학'의 수립을 문학운동의 당면과제로 제시함으로써 당대 문학의 이념이 민족문학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임화의 민족문학관은 중요한 비평사적 의의를 갖는다."⁴⁷⁾고

43) 임화, 「속 신문학사」, p.222.

44) 임화, 「개설 조선신문학사」, pp.297~298.

45)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 p.320.

46) 김재용 외의 앞의 책, p.725.

47) 위의 책, pp.801~802.

평가하고 있다.

4) 이식문학론

임화가 한국 근대문학사를 이식문학론에 입각하여 서술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로 말미암아 임화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화의 이와 같은 이식문학론은 “新文學史 研究는 西歐의 形態의 文學이 成立하고 發展한 歷史를 中心으로 可能”⁴⁸⁾하다고 하여 서구 지향적 태도에서 드러내었다.

그는 이식문학의 근간을 ‘저널리즘’과 ‘소설의 형식’에서 찾고 있다. “朝鮮의 「저널리즘」은 다른 新文化와 가치 移植文化의 하나로 朝鮮社會의 文明開化와 新文化의 形成上 莫大한 意義”⁴⁹⁾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의의를 요약하면, ① 發達한 印刷技術과 大量生産의 能展을 基礎로 新文化의 移植과 普及化에 잇서 學校教育과 더불어 가장 威力있는 文化形態이었던 點, ② 文化의 大衆化와 人民大衆의 文化에의 參與를 本來의 技能으로 하여 大多數 人民에게 解讀될 言文으로 表現手段을 삼았다는 點⁵⁰⁾ 등이다.

임화는 1939년 「개설 신문학사」를 『조선일보』에 연재하면서 “조선 신문학사의 시일을 30년”이라 보고 “서구문화에 접촉하고 그것을 이식한 기간의 전부”⁵¹⁾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족적 정체성이 혼란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이라든가 조선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일한합병’이 문화 이식이 계기가 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면서 “신문학이란 개념은 그러므로 일체의 구문학과 대립하는 새 시대의 문학을 형용하는 말일뿐더러 형식과 내용상에 질적으로 다르고 새로운 문학을 의미하는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문학사는 조선에 있어서의 서구적 문학의 이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⁵²⁾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조, 가사, 구소설, 혹은 이두문헌, 또는 한문전적까지” 한국적 개념

48) 임화, 「개설 신문학사」(5)(『조선일보』, 1939. 9. 9).

49) 위의 글(24)(『조선일보』, 1939. 10. 25).

50) 위와 같음.

51) 임화, 「개설 신문학사」(조선일보 1939. 9).

52) 위의 글.

인 문(文)이나 설(說), 논(論), 록(錄), 전(傳), 기(記), 가사(歌辭), 곡(曲) 등으로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적인 개념은 무시하고 오직 “서구적 의미의 문학, 즉 예술문학적 성질의 유산”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저급 말하거니와 신문학사는 근대 서구적인 의미의 문학의 역사”⁵³⁾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신문학이 이식문학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갑오 이후 근대에 우리 문화가 조선으로 회귀한 데에서보다 더 많이 세계를 향한 전개과정에 영향받고 전혀 모방문화, 이식문화를 만든 데 그쳤음은 (...)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근대화의 당연한 운동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중에도 조선의 특수한 점은 자주의 정신이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새 문화 형성에 이렇다할 영향을 남기지 못한 데 있다.

도대체 자기에의 철저한 회귀, 심원한 반성, 깊은 침잠 없이, 바뀌 말하면 자주정신의 진정한 실현을 보지 못하고 개화의 마당으로 창황히 달려 나간 데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다.⁵⁴⁾

이러한 문화의 이식은 우리 자신의 문제로 보고 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족성의 문제를 은근히 제기하고 있다. 즉 철저하지 못하고 자주성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민족성 때문에 문화를 이식하여야만이 우리 민족의 정체된 문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극복이 ‘개화의 과정’이라는 인식이다. 그는 “갑오 이후에 전개되는 개화의 과정은 구문화의 개조와 유산의 정리 위에 새 문화를 섭취하는 과정이기보다 오로지 구미문화의 일방적인 이식과 모방의 과정”⁵⁵⁾이라는 것이다.

외래문화의 수입이 우리 조선과 같이 이식문화, 모방문화의 길을 걷는 역사의 지방에서는 유산은 부정될 객체로 화하고 오히려 외래문화가 주체적인 의미를 띠지 않는가? 바뀌 말하면 외래문화에 침닉(沈溺)하게 된다. 외래문화의 탐닉은 곧 고유문화, 재래유산의 해체를 촉진하고 그것의

53) 임화, 「개설 신문학사」, p.17.

54) 위의 글, p.55.

55) 위와 같음.

임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원료가 곧 새 문화의 제조가 된다. 이것은 낡은 문화의 패배다. 그러나 (...) 동양 제국(諸國)과 서양의 문화교섭은 일견 그것이 순연한 이식문화사를 형성함으로 종결하는 것 같으나, 내재적으로는 또한 이식문화사를 해체하려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즉 문화이식이 고도화되면 될 수록 반대로 문화창조가 내부로부터 성숙한다.

이것은 이식된 문화가 고유의 문화와 심각히 교섭하는 과정이요, 또한 고유의 문화가 이식된 문화를 섭취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이식문화를 섭취하면서 고유문화는 또한 자기의 구래(舊來)의 자태를 변화해나간다.⁵⁶⁾

그런데 그는 '전통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 둘 점 하나는 이러한 일반적인 신문학의 이식과 모방에서도 고유문화는 전통이 되어 새 문화 형성에 무형으로 작용함은 사실인데, 우리에게 있어 전통은 새 문화의 순수한 수입과 건설을 저해하였으면 할지언정 그것을 배양하고 그것이 창조될 토양이 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 그것은 우리의 자주성이 미약하고 철저히 못했기 때문"⁵⁷⁾이라고 인식하였다. "인접문학의 압도적 영향하에 생성되어 발전한 신문학사, 다시 말하면 이식문화사로서의 신문학사가 조선의 고유한 전통과 교섭을 가졌다는 것은 일견 심히 기이한 일같다. 그러나 문화의 이식, 외국문학의 수입은 이미 일정 한도로 축적된 자기 문화의 유산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⁵⁸⁾고 하여 이식의 차원을 넘어 수용의 차원으로 인식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이러한 여지는 일정한 정도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식문화와 전통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 ① 조선의 문학이란 신문학의 시대가 비롯하기 전에 자기의 국유어(國有語)로 표현될 자유를 갖지 아니했었다. 전통의 문학적 작물(作物), 시, 전기, 사기, 신화, 전설의 기록, 소설, 희문(戲文), 일기, 수필류에 이르기까지 한문으로 씌어졌다.

56) 임화, 「조선문학 연구의 일 과제」, p.381.

57) 임화, 「개설 신문학사」, p.56.

58) 임화, 「조선문학 연구의 일 과제」, p.380.

오직 구전의 가요, 전설이 경우 고유어를 그대로 사용해온 데 불과했다는 것은 신문학의 고유어 전용이 하나의 정신사적 의의를 가짐을 상상시키기에 족하다.⁵⁹⁾

- ② 문학은 언어 이상의 것, 하나의 정신문화인 점을 생각할 때 한문으로 된 문학은 조선인의 문화사의 일영역인 문학사 가운데 당연히 좌석을 점령치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문문학사는 조선문학사의 한 특수 영역일 따름이다.

(…) 그러나 신문학사의 대상 가운데는 물론 직접으로 한문문학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신문학과 그 전의 문학과와의 접촉을 연구하고 나아가서는 그 정신적 또는 형태적 교섭을 천명함에 있어 한문문학은 전대의 언문문학과 더불어 신문학과와 곧 연결된다.⁶⁰⁾

- ③ 우리는 조선에 있어서 근대정신의 선구인 실사구시의 학문(과학사상)이 한학자들에 의하여 쓰여지고 언문소설의 선구가 역(亦) 지나의 한문소설의 수입이나 또는 전래설화를 한문으로 소설화한 데서 비롯함을 볼 때 신문학사가 제 대상의 한 영역으로 당연히 한문문학을 고려해야 할 것을 강조하지 아니 할 수 없다.⁶¹⁾

①에서는 한문으로 씌어진 것은 배제하고 구비문학적인 것들을 정신사적으로 의의가 있는데, 이는 신문학의 언어와 접맥되고 있는 것으로, ②에서는 한문으로 기록된 문학인 경우 특수 영역으로 인식하면서도 정신사적 또는 형태적으로 신문학과 교섭·연결되고 있음을, ③에서는 한문문학을 신문학사의 한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식문학과 전통문학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1940년에 와서 현저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신문학이 서구적인 문학장르(구체적으로는 자유시와 현대소설)를 채용하면서부터 형성되고 문학사의 모든 시대가 외국 문학의 자극과 영향과 모방으로 일관되었다 하여 과언이 아닐 만큼 신문학사란

59) 임화, 「개설 신문학사」, p.19.

60) 임화, 「조선문학 연구의 일 과제」, p.374.

61) 위의 글, p.375.

입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이식문화의 역사”⁶²⁾를 고집하고 있다. 이식문화라야 하는 이유는 “쇄국주의자의 항쟁이나 보수파와의 투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일(一日)이라도 속히 이와 같은 외래세력과 같은 정도로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문명개화하고 부국강병 해지겠느냐 하는데” 있었으며, “그러기 위하여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나 가장 일반적이고 손쉬운 길은 새 문화의 이식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민도(民度)도 각성되고 실력도 향상되리라고 생각”⁶³⁾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화의 이러한 인식은 주체적 인식이라기보다 민중우매 사관 즉, 주체자는 앞서 있고 민중들은 우매하여 이들을 이끌 방법이 없으므로 외국 문화를 새롭게 심어 계몽하고 선도하겠다는 지도의 원리에 입각한 인식이다. 바꿔 말하면 이식문화로만 인식하고 있어 문화를 수용한다는 주체적 인식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와 민족적 정체성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민중을 우매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나, 민중들의 삶의 방식이나 전통적인 것들을 봉건잔재로 인식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열패감이 깊이 자리한 때문이다. 주체적 수용문화가 아닌 객체적 이식문화로 인식하는 것은, 김윤식이 지적했듯이 ‘한국 문화의 식민지성, 혹은 주변성’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입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근대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경제 구조에서 찾고 있으며, 둘째 시대구분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미흡하며, 셋째 문학사를 지도 원리에 의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넷째 이식문화와 전통문화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나 주체적 수용에까지 그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체감의 혼란과 그 기층이 깊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문학사는 언제나 새로 쓸 수 있다. 그러나 기간(既刊)의 문학사에 대한 반성

62) 입화, 「조선문학 연구의 일 과제」, p.378.

63) 입화, 「속 신문학사」, pp.224~225.

과 평가 없이는 기간의 문학사 방법과 인식의 틀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문학 작품의 창작도 그 주도될 성향을 전망할 수 없게 된다.

참고 문헌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 김진기, 「〈임화의 『조선신문학사』〉 비판」, 건국대학교 국어국문연구회, 『건국어문학』 제19·20합집, 1995.
- 누시노프, 세이트린, 『사회주의 문학론』(백효원 옮김), 과학과 사상, 1990.
- 송희복, 『한국문학사론 연구』, 문예출판사, 1995.
- 양영길, 「한국 근대문학사의 서술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 , 「김태준의 문학과 인식방법 연구」, 『백록어문』 12집, 1996. 1.
- , 「한국 근대문학사 구성방법 연구」, 『영주어문』 2집, 2000. 2.
- 임화, 『신문학사』(임규찬·한진일 편), 한길사, 1993.
- 정호웅, 「'임화 소설사'의 몇 가지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집, 1997.
- 조선문학가동맹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온누리, 1988.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제1부), 현대문학사, 1956.
- 하정일, 『민족문학의 이념과 방법』, 태학사, 1993.